전북도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 '총력'

이달 말까지 소·염소 대상·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추진… 구제역 방역관리 '만전'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구제역 청정지역 전북을 만들기 위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일제접종은 농가의 예방접종 소홀 및 개체별 접종시기 차이에 따른 접종 누락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소·염소 사육 농가가 구제역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2017년 9월부터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로 정례화해 시행하고 있다.

하반기 일제접종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며 접종기간 동안 도내 12천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575천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며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800마리 미만 사육)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염소만 해당)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 소규모 사육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소 전업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 등에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해야 하며, 정부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돼지 사육 농가는 농가별로 자체 여건에 맞춰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접종하면 된다.

염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구제역 예방접종실시대장'에 예방접종 상황을 수기로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북도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부터 농가의 항체 양성률을 검사하여 제대로 접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1회 위반의 경우 500만 원)를 부과하고, 재접종 명령과 4주 간격으로 재검사를 하는 등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백신접종 관리와 더불어, 임차·수탁 사육 농장 등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하는 등 구제역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19년 1월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 등 우리나라 주변 국가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만약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큰 만큼 농가에서는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하고 농장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모범노인·노인복지증진 유공자 37명 표창장 수여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제26회 노인의 날'을 맞아 도청 공연장에서 노인의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노인의 날'은 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97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UN에서도 1991년부터 매년 '세계 노인의 날(10.1)'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의 경로효친 의식을 드높이고 노인의 권익 신장과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대한노인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도내 어르신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초청가수의 식전 축하행사에 이어 평소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 공로 유공자 37명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종훈 도 정무부지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노고와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기자

전북도, '두손푸드' 방문… 현장행정 추진

도 윤동욱 일자리경제본부장, 기업 애로사항 청취·사회적 기업 체감가능한 정책 지원 다짐

최초로 마시는 죽을 개발한 사회적 기업 (주)두손푸드에 전라북도 윤동욱 일자리경제본부장이 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행정을 가졌다.

본부장은 5일 정읍시 칠보면에 위치한 ㈜두손푸드(대표 구성규)를 방문해 기업현황에 대한 설명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산시설을 견학했다.

2011년 7월에 설립하고 2014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주)두손푸드는 지역농산물을 이용해 마시는 죽 등을 생산하며 올해 8월에는 인도네시아 수출을 시작한 우수 사회적기업이다.

㈜두손푸드는 작년 매출 38억 원을 달성했으며 2019년에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대상을 수상했고, 2022년에는 전라북도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정지원, 성장지원등 단계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초기 경영안정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등 재정지원 사업과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 R&D를 지원하고, 판로지원을 위해서 공동판매장 구축, 박람회 개최, 공공기관 우선구매 홍보 등 단계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10월에 준공되는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으로 공간·인력·장비 등 인프라 집적화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윤동욱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체감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이웃사랑의사회, 인재양성 위한 후원

익산소방서직원 자녀 10명에 50만원씩 장학금 전달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김학권)은 (사)이웃사랑의사회(이사장 최영태)에서 특별지정방식으로 장학금 5백만원을 기탁받아 익산소방서직원 자녀 10명에게 각 5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전주시 송천동 은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열린 장학금기탁식에는 김학권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최영태 (사)이웃사랑의사회이사장, 이재은 (사)이웃사랑의사회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은 (사)이웃사랑의사회 회장은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활동을 통한 시민의 생명보호에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협조하에 익산시 소방서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학권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소방서직원의 자녀들에게 뜻깊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 주신 (사)이웃사랑의사회에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한 의미있는 장학사업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사)이웃사랑의사회는 도내지역 의사회 회원들을 주축으로 설립된 사회봉사단체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1대1 멘토링 자매결연 사업, 청소년 생활 장학금 지원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복지사업, 저소득층 명절 상차림 지원 사업, 사회복지시업단체 후원사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김경수 기자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 페페트병으로 친환경 유니폼 제작

친환경 소재로 대회 자원봉사자·운영요원 등 유니폼 만들어

'지속가능한 친환경 스포츠대회' 실현에 동참 의지 표현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공동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친환경 재활용 원단을 활용해 대회 유니폼을 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조직위에 따르면 최근 국제사회는 스포츠분야에서도 '환경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시대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대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쓰레기 최소화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조직위는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친환경 유니폼 제작을 기획하고, 적합한 업체선정과 원단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1차 디자인 결정 후 보드품평회를 개최했다.

친환경 유니폼은 버려진 페트병을 선별 압축해 분쇄, 세척 과정을 거쳐 재활용해 만든 업사이클링 의류이다.

유니폼 디자인은 대회 상징물인 심볼마크, 마스코트 등을 활용해 대회의 의미를 담고, 색상은 한국의 전통색인 오방색(청·적·황·백·흑)을 기본으로 사용해 제작한다.

보드품평회에서 조직위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마쳤고, 10월 중 섬유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아 최종 유니폼을 제작·발주할 계획이다.

제작된 유니폼은 자원봉사자 그리고 국제심판 및 경기운영 요원 등에게 지급된다.

조직위원회 이강오 사무총장은 "국내외적으로 친환경 인식 확산 및 지속가능발전 추구 등으로 스포츠계에서도 친환경 리사이클 유니폼 제작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스포츠 대회를 위해 유니폼 뿐 아니라 분야별 환경과 연계한 실천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생활체육인의 국제종합체육대회로, 2023년 5월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세계 각국에서 1만여명이 참여해 전라북도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뉴시스

전북선관위, 선거비용 관련 후보자 등 11명 고발

전북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회계책임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 7명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회계책임자 4명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0.5%)을 초과하여 최소 2.1%에서 최대 6%를 초과 지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무주군 공고 제2022-1002호

무주 도시공원 조성계획(생태모험공원) 결정(안)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무주 군계획시설(문화공원)조 선정 고시 된 무주생태모험공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선정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생태모험공원) 조성계획 선정(안) 도시를 공람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무주 도시공원 조성계획
가. 공원조성계획 선정 개요
- 무주군의 청정한 만덕골의 등 손상물에 대한 자연환경의 보존대체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환경보전 주요정책을 알리고, 생태체험과 모험레포츠를 결합한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아동, 청소년 및 가족과 함께 체험·휴식·힐링이 가능한 친환경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나. 공원 현황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결정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생태모험 공원	문화공원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378-1번지 일원	99,524	2022.09.23. (전라북도 고시 제2022-226호)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시설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공원전체면적	99,524.0	737.2	1,629.1	
시설부지면적	37,879.2			시설율 38.1%
도로 및 광장	17,628.8			
휴양시설	1,220.2			
운동시설	53.7			
조경시설	1,384.5			
교양시설	11,420.2			
편익시설	4,698.9	156.2	156.2	
관리시설	1,472.9	581.0	1,472.9	
녹 지	61,644.8			녹지율 61.9%

라. 공원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 조서 : 붙음 생략
2. 열람장소 : 무주군청 건설과
3. 공고기간 : 신문게재 다음 날로부터 14일(토요일 포함)
4. 주민의견제출
- 위 군계획시설(생태모험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건설과(063 322) 2410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관계도서 : "신문생략"

2022년 10월 6일 무주군수